



경영이론·실무 장착... '혁신 리더'로 퀀텀점프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유학을 떠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경영대학원(MBA)이 혁신 경영자를 꿈꾸는 미래 인재 요람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 주요 대학MBA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사회적기업, 융·복합 산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대학MBA과정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MBA 졸업생들은 기업들로부터 현장 능력을 겸비한 혁신 인재로 호평받는 이유다.

기존에 각광받던 사업도 어느새 사양사업이 되는 등 산업 지형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다른 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MBA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진 100세 시대, 직장인이라면 MBA에서 커리어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고민해 볼 법하다. 주요 MBA의 원서 접수를 앞두고 최고경영자(CEO)를 꿈꾸는 유망주들이 적성과 목표에 맞는 MBA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대학별 특성을 소개한다.

/김보리 기자 boris@sedaily.com

세계가 인정한 GSB...FT평가 10년 연속 국내 1위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성균관대학교 SKK GSB(Graduate School of Business·원장 에릭 추안 풍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글로벌 MBA(주간) 평가에서 올해 세계 35위로 올라섰다. 이는 전년보다 19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로써 SKK GSB는 아시아 7위, 10년 연속 국내 1위를 달성했다.

2004년 설립된 SKK GSB는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 과정과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강화하며 토종 MBA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상을 길러내기 위해 미래 비전 제시에 힘쓰고 있다. 지난 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과정과 AIMBA 과정을 신설했고, 올해



는 풀타임 MBA 과정(주간)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트랙을 추가해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간 MBA 권에스터 학생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트랙에서 습득한 스킬을 적용해 효율적인 소비자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SKK GSB가 토종 MBA로 저력을 과시하는 것은 철저한 국제화에 있다. 교

수진 70%와 풀타임 MBA 학생 50%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SKK GSB 학생들은 미국인 교수의 지도 아래 프랑스 학생들과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칠레 학생과 해외 시장 전략을 토론한다.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SKK GSB의 학습 환경은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보리 기자

'바쁜 직장인' 맞춤 과정...주1회 수업으로 졸업 OK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원장 전병준) 프로그램은 이론뿐 아니라 실무 경쟁력 강화에 정평이 나 있다. 중앙대 MBA는 'Global MBA(풀타임)'와 'CAU Leader MBA(야간 및 토요일 전일제)'로 2가지로 구성됐다.

CAU Leader MBA 과정은 토요일 전일제 수업만으로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직장인 꿈 양성소'로 불린다. 이 과정은 다양한 분야 직장인의 실무 경쟁력 향상에 주력한다. 수업은 야간과 토요일에 진행된다.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 우위를 높일 수 있는 역량과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현장 경험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전문경영자 양성이 프로그램 목표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 개설된다. 평일 야간에 수업을 듣기 어렵거나, 지방에 거주 중인 이들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2017학년도부터는 토요일 수업을 전일제로 대폭 확대해 오전부터 저녁까지 4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토요일에 4개 과목의 수업을 듣고, 방학 중 진행되는 학점 인정 해외연수에 참

여한다면 주 1회 수업 참여만으로도 졸업 시 필요한 총 45학점 취득 및 필수과목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세부 전공 과정으로 인사·조직, 생산 운영·경영정보시스템, 마케팅,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재무·금융 등 특성화 영역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산업으로 커리어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김보리 기자

데이터 분석능력·통찰력 갖춘 전문경영인 양성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전일제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개설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은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융합형 리더 양성에 주력하며 다양한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은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경영 리더 양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데이터 분석능력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 커리큘럼을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문제 해석은 물론



실제로 현업에 적용하고 응용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 다른 핵심 커리큘럼은 '기업가정신'이다. 창조적 혁신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과 영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태계 창조자(Ecosystem-creator)로서의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7개 MBA 과정과 3개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관심분

아와 재직여부에 따라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테크노경영MBA는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심도 있는 기술적 분석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 기업과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경영분석 및 자문실습을 통해 신입사원 기회 발굴 능력도 키울 수 있다. /한동훈 기자

IT·예술 150개 강의 개설...글로벌 복수학위 취득도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은 한양MBA, 프로페셔널MBA, 인터내셔널MBA 등 3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세부 트랙은 18개로 구성되며 연간 150여개 강의를 제공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의료, 정보기술(I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한양MBA는 미래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목표로 설계됐다. 조직인사, 회계, 재무금융, 글로벌비즈니스, 경영전략&벤처, 경영정보, 마케팅, 생산서비스 경영(OSM), 기업경영 등 9개 전공 특화 트랙으로 구성됐다. 이 중 개인별 100% 맞춤형으로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는



기업경영 트랙은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과목 설계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프로페셔널MBA는 산업별로 특화된 경영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의료경영, 금융투자, 디지털비즈니스, 문화예술경영, 글로벌기업YES, 최근 신설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6개의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한동훈 기자

인터내셔널 MBA는 국제화 경영인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KABS(Korea and Asia Business Studies) 트랙은 한국·아시아 지역특화 경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유럽, 아시아, 중국 등 14개국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경영대학에서 복수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백 년 이 가는 주택, 오래 머물고 싶은 주택"

건축 문의 및 상담 buwoon2007@daum.net